

함께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5

2017. 10.22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
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6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 3 교회 소식
- 4-5 사진으로 본 정신학원 130년
- 6 무용극 애니 엘러스
- 7 정신학원 130주년 특별기고
- 8 공동체 소식, 아기사슴이

교회 일정

- | | |
|------------|----------|
| 10/22 (주일) | 세례,입교식 |
| 10/27-28 | 정책당회 |
| 10/29 (주일) | 종교개혁기념주일 |
| 11/5(주일) | 성찬주일 |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개교 130주년

개교기념식 :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1시30분 본교대강당(김마리아회관)



2017년 10월 19일 김마리아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개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내외귀빈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정신학원 130주년을 맞다

정신학원의 빛나는 130년 역사

주님의교회가 몸담은 정신학원이 10월 20일로 개교 130주년을 맞았다. 정신학원은 올해 29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보다 100년이 넘는 오랜 연륜을 가진 곳일 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사의 초기에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기독교 교육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유서 깊은 터전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신학원은 또한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장로교회 재단의 학교라는 점에서도 소중하며, 매년 천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양육하는 곳이기도 하다.

돌이켜본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관계이다. 주님의교회는 여느 대형 교회와 달리 자체 건물을 갖지 않고,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며, 목회자 임기제를 실천하고, 재정의 50%를 외부 지원과 섬김에 사용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이 모두 정신학원과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학교와 교회의 선한 협력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선교 모델이 아닐 수 없다.

정신여중고와 주님의교회의 관계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5월 정신여중고의 이용욱 목사가 진행한 재미교포 여고생 초청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한 후 간담회 자리에서 정

신학원의 강당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교회에서는 이 제안을 심사숙고한 후, 이재철 목사가 당시 지동소 교장에게 주님의교회가 강당을 건축하겠다고 제안했고,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교회에서는 이해 8월 당회에서 강당 건축 사업을 결정했다. 이는 예배당 무소유 정신과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창립정신이 결합하여 구체화된 것이었다.

강당 건축의 진행

진행이 원만하지는 않았다. 주님의교회가 제시한 초기 강당 설계는 예배와 공연을 하기에 적절한 부채꼴 모양의 원형극장 같은 형태였지만, 합창과 무용 등 넓은 무대가 필요한 학교 강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학교측의 반대로, 논의 끝에 현재와 같이 중정을 둔 네모꼴의 형태로 합의했다. 설계 주체는 정신여고가 되었으며, 건물의 모티브는 노아의 방주였다.

추정 공사비는 60억 원이었으며, 이귀영 집사가 설계하고 건축비 분할 납부에 동의한 강산건설이 공사를 맡았다. 1997년 8월 5일 기공, 1998년 10월 준공하고 11월 10일 입당 예배를 드렸다. 건물의 소유주는 정신여중고이며, 주님의교회는 향후 50년 동안 대강당을 빌려 사용하되 50년이 지나 서로 이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다시 50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주님의교회 정신학원 이전과 증축

1995년 9월에 정신여중고의 강당 건축이 결정되고 진행되자, 이듬해 3월 3일부터 주님의교회는 주일예배를 정신여중고 소강당에서 드리기 시작했고, 강당이 완공되면서 이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겼다. 교인이 증가하면서 2001년 6월 수련관 위로 3개 층과 지하에 약 600석 규모의 강당을 증축하기로 결정, 2002년 12월 22일 완공했다. 이후 계속되는 공간 부족에 따라 2013년에는 다목적교육관을 건축하여 정신학원에 기증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선한 협력관계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과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낸지 어언 이십년을 맞는다. 그러나 선생님, 교직원, 학생들과 일반 교인의 접촉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말은 물론 주중에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주님의교회가 학원에 깃들어있는 만큼, 교회 정관에는 청소년 사역을 중요한 실천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정신학원의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끄는 기둥이 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정신학원 13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11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바로 칼뱅이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촉발하였지만 그 영향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취리히와 스위스 몇몇 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칼뱅은 제네바를 위시한 스위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으로 뻗어가 뉴잉글랜드를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오늘날 개혁신교회(장로교회)라 불리는 전통은 대부분 칼뱅에게 의지하고 있고, 신학과 교회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



칼뱅 초상화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의 누아용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라틴어와 수사학을 공부하였고, 후에 장성한 성인이 되어 법학과 인문학을 배웠다. 칼뱅은 1533년 전후에 프로테스탄트로 회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즈음 파리에서는 가톨릭 미사를 비방하는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붙는 사건이 있어 프로테스탄트가 한층 더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였다. 칼뱅은 스위스 바젤에 머물면서 프랑스의 박해받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변호하고자 기독교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해 27살이 되던 1536년 3월에 출판하였고,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파렐이 칼뱅을 찾아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강권하여 제네바에서 사역이 시작되었다.

칼뱅은 1차 제네바 사역에서 <신앙고백과 규율>, <요리문답>을 작성하여 목회자와 교회를 교육하였지만 제네바 토착세력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

았다. 그 결과는 제네바로부터 추방이었는데, 후에 제네바에서 다시 청빙을 받았을 때 ‘차라리 백번이고 십자가를 지는 편이 낫다.’고 하며 완강히 거절할 정도로 그의 1차 제네바 사역은 순탄치 않았다. 제네바에서 쫓겨나 바젤에 머물던 칼뱅을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가 부처가 불렀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약 3년을 머물며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회고한다. 부처의 중매로 결혼도 하였고, <기독교강요 개정판>과 <로마서 주석>, <기독교강요 불어판>을 출판했다.

결국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는 종교개혁의 동료들이 강권하자 자신의 뜻을 꺾고 제네바행을 결심하며 파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제네바가 개혁교회의 요람이 되기까



칼뱅이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생피에르 교회

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541년부터 1555년까지 적어도 14년 동안 칼뱅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제지를 받으면서 <교회법령>을 마련하여 예배의식과 교회의 제반 관습을 개혁하였으며,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치리기구(컨시스토리)를 만들어 도덕을 바로 세웠다. 또한,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개혁하고 종합구빈원과 프랑스기금을 통해 사회복지실천하는 등 제네바를 신율적 도시로 만들어갔다. 그 결과 1556년 제네바를 방문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는 제네바를 “사도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 칭송하였다. **박주영** 전도사

선교이야기 9

구속적 유사(Redemptive Analogy)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현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무언가 어색한 티가 나기 마련이고 심지어 복음마저 낯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현지 문화에 적합해 보이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신약성경은 구속적 유사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보자. 유대인들은 제사 때 양을 제물로 바쳤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였다. 그것은 구약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이,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는 제사의 핵심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analogy, metaphore)함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었다.

선교사들이 각 문화의 특유한 구속적 유사를 찾아내게 되면 이러한 구속적 유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구속적 유사와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 회심에 이르도록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 내에 숨어 있는 영적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회심 후에도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부인하지 않고 성경과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전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

뉴기니아에 거주하는 사위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돈 리처드슨 부부는 구속적 유사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배신을 미덕으로 존중하는 사위부족에게는 가룟유다가 영웅이었기에 복음전도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중에 화평을 이루

는 한가지 방법이 있었다. 한 아버지가 원수처럼 싸워 온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 중 하나를 주어 키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다. 부족 간 전쟁이 극한으로 다다랐을 때 리처드슨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해의 아이로 제시할 수 있었다. 사위족은 곧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자기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오늘날 사위족 중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 장로교 개척자들은 신(God)을 나타내는 한국 이름(하늘님, 하나님, 즉 위대하신 분)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쳐두고 외국 이름을 강요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 거의 100년 안에 약 1000만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아랍어 이름 알라(Allah)를 엘로힘의 동의어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알라를 사용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투한 알라(Tuhan Alla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 국가는 ‘알라’라는 단어가 무슬림들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 알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참고 : 퍼스펙티브스, ‘구속적 유사’, 돈 리처드슨

해외선교분과위원회

목회칼럼

영혼의 방

저희 집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12살 아들, 7살 딸, 4살 딸 이렇게 다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방을 달라고 요청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 하나를 내 주었습니다. 아들이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한다니 결혼하면서 구매한 전자피아노를 넣어주었고,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하니 책상을 사 주었고, 안락한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니 1인용 침대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갖고 싶은 그런 방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이 멋지게 꾸며진 걸 보고는 기분 좋아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방은 너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다. 아빠는 너에게 방을 양보하고 이제부터 거실에서 자야 한다. 이 방을 얻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이 방을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은 점점 쓰레기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닥과 책상 밑에 널 부러진 냄새나는 양말과 옷들, 책들은 이곳저곳 펼쳐진 채로 굴러다니고, 지우개 가루와 솜처럼 뭉쳐진 먼지들과 조그만 레고 조각들이 발에 밟힙니다. 심지어 침대 밑을 들쳐보니, 언제

버렸는지 모를 과자봉지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전 화가 났습니다. “특권이 주어졌으면 잘 관리해야지. 이게 뭐니? 정리 좀 하고, 쓰레기 생기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 방이 생기면 뭐하니? 이렇게 엉망진창인걸. 이러려면 방 빼~”

잔소리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룩한 영혼의 방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방안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그 방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찬찬히 제 영혼의 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과 의 아름다웠던 만남을 기억하는 것보다, 악한 것들을 더 쉽게 기억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절망한 기억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 소유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욕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힘든 노력은 하기 싫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군수군하고 싶고, 거역하고 반발하고 싶고,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와 아량이 없고, 오래참지 못하고, 허세와 자만의 쓰레기들이 영혼 구석구석 잘 숨겨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냄새가 진동하고 오염된 제 영혼의 방은 청소할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아들의 방이 더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리석은 아빠였습니다.

제 영혼에 산적한 각종 쓰레기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의 목록들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전부 공개가 된다면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의 목록, 실패의 목록들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그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과 나무 십자가 사이에 우리 죄의 목록들이 못에 박혀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진 종이에 우리의 실패한 일들, 우리의 정욕과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의 세월, 더러운 성품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힌 죄의 목록이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의 목록들이 지금 예수님의 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목록이 뒤덮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사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살다보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 영혼의 방을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죄의 쓰레기들은 점점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민감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모닥불을 지펴놓고 둥글게 서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 생각나곤 합니다. 투박하지만 무더진 심장에 못을 박는 그러한 찬양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잊혀져갈 때 이 찬양을 나지막이 불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문희삼 목사

사역활동

미시오 찬양대 보훈병원 위문예배



10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미시오 교회에 찬양 위문예배를 다녀왔다. 김대환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환우 분들과 보호자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다. 찬양을 마치고 준비해간 선물을 나누어 드리며 환우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는 순간에 환우들 눈에서는 작은 눈물이 맺혀 발길을 머물고 병실로 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미시오데이 찬양대에 감사를 드렸다.

중앙보훈병원 김경수 목사는 6.25 전쟁과, 이억만리 월남 전선에서, 전후방에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위

중한 상처를 입고 평생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중인, 국가유공자 환우들과, 평생 이들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쳐있는 보훈가족들에게,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단의 영감의 찬송은 가슴 벅찬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다면서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원께 감사를 전했고, 주님의교회 교우들께도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우리 국가유공자 환우들과 보훈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함글함글

특집 / 정신학원 130주년

사진으로 본 정신학원 1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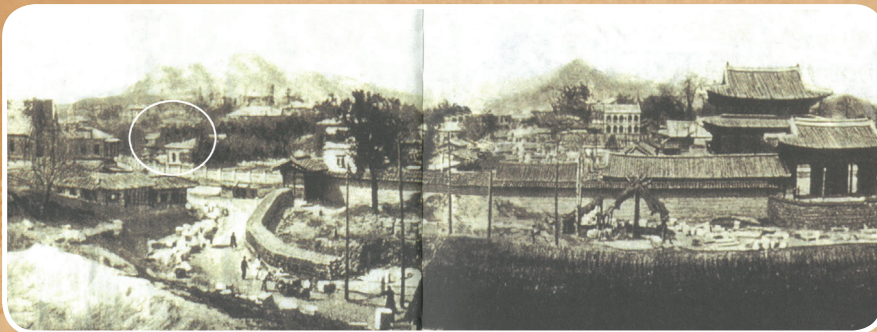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로 가득한 머리를 자르고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그녀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아이의 이름은 ‘정네’ 였다.”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한 26세의 미국 의료선교사 애니 엘러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그이는 거리를 떠도는 고아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숙소에서 씻기고, 입히고, 가르쳤다. 그것이 정신학원의 출발이었고, 130년 전의 일이었으며, 이땅 근대의 출발이었다. 이 화보는 그에게서 시작한 작은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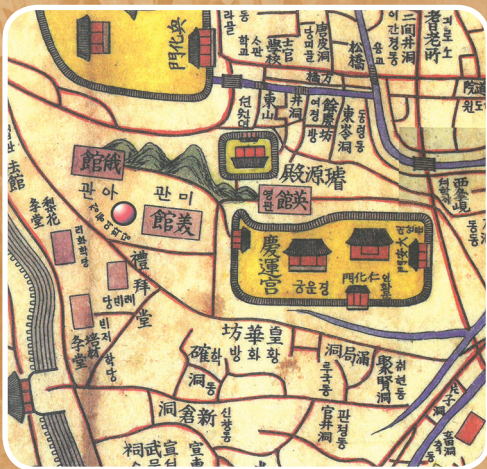
1. 애니 엘러스는 1862년 8월31일 미국 미시건주 버오크에서 장로교회 목사 딸로 출생, 1886년 미북장로회 선교부 총무 엘리우드에게 의해 조선으로 파송되어, 벙커(D.A.Bunker), 헐버트(H.A.Hulbert), 길모어(G.W.Gilmoer)와 함께 조선 땅에 입국했다. 그이는 1886년 명성황후 시의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여의사로 근무하면서, 1887년 고종이 하사한 정동28번지에서 첫 학생 ‘정네’와 함께 정신여학당을 설립했다.



2. 구리개는 지금의 을지로이다. 애니 엘러스가 근무했던 제중원이 여기에 있었다. 애니 엘러스는 열정과 헌신으로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고종으로부터 정2품 정경부인을 제수받았다.



3. 정신학원은 처음엔 정동에 있어 정동여학당이라고 불렀다. 그 자리에 고종은 덕수궁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중명전을 세웠다.



4. 옛 지도에서 찾아본 정동여학당의 위치.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5. 정동여학당 시절의 학생들과 2대 교장 헤이든(오른쪽), 3대 교장 도티(왼쪽). 학생들이 무척 어려 보인다.



6. 1895년, 학교를 연동으로 이전하면서 동네 이름을 따라 연동여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당시 학생은 10명이었으며,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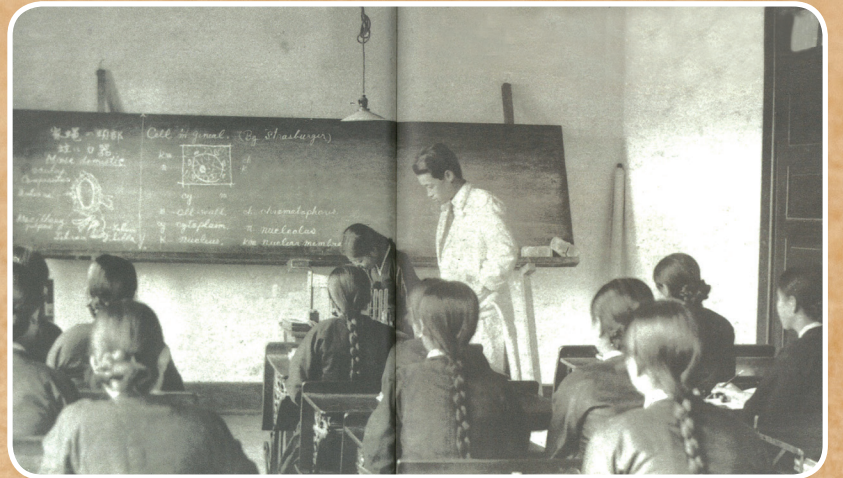


7. 1896년 신마리아 선생에게서 두 학생이 바느질과 서예를 배우고 있다. 1903년에는 학제 개편에 따라 연동여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성경, 한문, 역사와 지리, 산술, 습자와 도화, 음악, 가사와 침공, 생물과 위생 등을 가르쳤다.





8. 세브란스가 기부한 돈으로 지은 세브란스관. 지하 1층 지상 3층 벽돌 건물이었다. 이해 한일 강제 합병이 이루어졌다.



9. 생물 실험 실습 장면. 조선총독부는 이 무렵부터 총독부가 지정하는 교과과정에 따르면 대학과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고등보통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신여학교는 성경 등 기독교 교육이 통제될 것을 우려, 승격을 거부하고 각종학교로 남았다.



10. 탁구 연습을 하는 1935년의 학생들. 이 무렵부터 조선총독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통보했다. 선교부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총독부에 대립하던 정신여학교를 교육계에서 인퇴시키기로 결정했다. 결국 1944년 설립된 풍문학원이 정신여학교를 인수했고, 1945년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학교는 폐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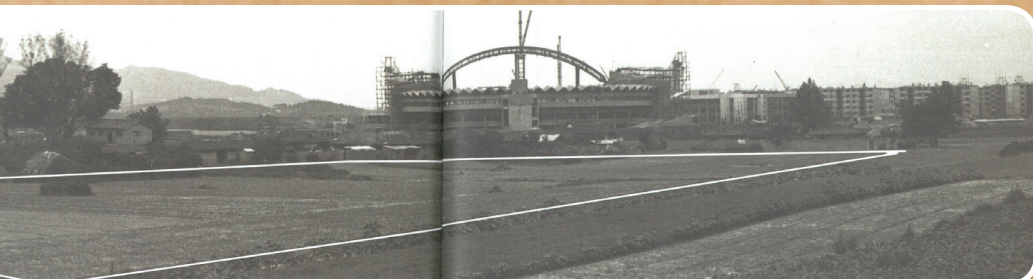


11. 6.25 전쟁 중 부산 피난 학교. 해방이 되자 학교 교사가 선교부로 복귀되었고,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 재건이사회를 조직, 1947년 학교가 재건되었다.



12. 1969년 후일 정신학원의 자량이 된 노래선교단이 창단되었다. 이해 정신여자중학교와 정신여자고등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13. 1977년의 연지동 교사. 1978년 잠실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978년 12월 잠실동 교사로 이전했다.



14. 1978년의 잠실동 교사 부지. 허허벌판 건너편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멀리 보인다.

특집 / 정신학원 130주년

예술제 등 다양한 기념 행사 열려

정신학원 1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열린 무용제, 음악회에 이어, 정신총동문예술제, 무용극 <애니 엘러스>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0월 19일에는 김마리아회관 대강당에서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여중고 개교130주년 기념식이 열렸으며, 26일에는 “포용과 화합속에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정신인”이라는 주제와 “손을 잡는다, 마음을 맞는다, 함께 달린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정신인총동문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었던 애니 엘러스를 기리는 무용극 <애니 엘러스>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공연은 특히 의료선교사로 이땅에 와서 한국 근대 교육에 이바지하고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내린 애니 엘러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에피소드를 무용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용극 <애니 엘러스>를 말한다

애니 엘러스는 1862년 8월31일 미국 미시건주 버코크에서 장로교회 목사 딸로 출생, 1886년 미북장로회 선교부 총무 엘린우드에 의해 조선으로 파송되어, 벵커(D.A.Bunker), 헐버트(H.A.Hulbert), 길모어(G.W.Gilmoer)와 함께 조선 땅에 입국했다. 그녀는 1886년 명성황후 시의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여의사로 근무하면서, 1887년 고종이 하사한 정동28번지에서 첫 학생 “정네”와 함께 정신여학당을 설립했다.

애니 엘러스’는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 종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사 속에 묻혀 가려워진 인물이다. 무용극 <애니 엘러스>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 속에 일어난 사건과 에피소드들을 재조명하고 한국의 근대 역사 속에 숨겨진 의미 있는 사실들을 풀어낸 무용극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과 타 예술의 협업으로 음악, 연극, 미술, 영상 등 화려한 볼거리와 작품 속에 나열되는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희노애락과 인생 역정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연 취지

<애니 엘러스>는 순수 창작 공연으로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작품이다. 무용과 음악, 영상 등 타 예술가들의 협업작업으로 관객과 소통을 위한 시청각적 융합 창작작품이며 동서양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공연예술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공연 내용

이 공연은 애니 엘러스의 생애를 총 4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장르는 무용이 중심이 되어 음악, 연극, 미술, 영상 등이 함께 협업하는 작품으로 연출된다.

프롤로그

1장 만남 첫번째 - 낯설음과 호기심 그리고 소통

2장 만남 두번째 - 알 수 없는 갈등, 또 다른 만남과 도전

3장 충돌과 변화 - 혼돈과 시련 그리고 두려움

4장 회상 - 사랑과 추억 그리고 이별, 회복

에필로그

무용극 ‘애니엘러스’는 조선여성들의 계몽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인물의 삶을 재조명한 순수 창작 무용극이다. 명성황후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조선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운명적인 삶은 우리나라의 여성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려진 순수한 한 여성의 헌신으로 비롯된 수많은 에피소드와 삶의 갈등, 그리고 그녀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현재, 미



래 모습까지.. 한 인생을 통한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가 무용과 영상 드라마틱한 음악과 함께 무대 위에 연출된다.

* 단츠테아뜨르 Tanztheater

‘무용극’이라는 뜻. 독일 출신의 무용가 피나 바우쉬(현대무용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댄스 퍼포먼스이다. 기존의 무용동작에 연극적인 요소를 섞어 실험적인 무대를 구성했다.

간증

그녀가 남긴 믿음의 유산임을 고백합니다

2007년, 정신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것을 무용으로 풀어가게 하시며 공연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

2016년 8월, 정신학원의 설립자인 애니 엘러스 선교사에 대한 작은 소망과 희망이 담긴 나눔으로부터 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용수도, 재정도 없었던 미약한 시작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스텝을 붙여주시고 무용단을 만들어주시고, 국립극장이라는 멋진 무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원자를 통해 재정까지 채워 주셨습니다. 준비하는 매일 매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 것이 저희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를 외치며 정신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용극 ‘애니 엘러스’는 기존의 무용 공연과 달리 춤과 연극, 영상, 음악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한 융복합 공연입니다. 무용과 함께 타 장르의 예술과 협업을 함으로 다

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주며 보다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 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후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육국과 학교법인 배재 학당, 미 연합감리교회 교육국,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와 주님의 교회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후원을 통해 이 공연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

려 드립니다.

또한 애니 엘러스의 삶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우리들이 그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분의 믿음의 유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고결한 인격과 희생적인 봉사의 삶을 우리의 몸짓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알게 되면서 믿음의 빛진 자로 더 깊은 감동으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석정아** 정신여교 교사

특집 / 정신학원 130주년 특별기고

개교 130주년 맞아 새로운 역사를

정신학교의 역사는 바로 한국의 여성독립운동사요 한국의 여성계몽운동사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정신학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를 배출하였으며 21세기 글로벌 여성 인재 발굴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신 개교 130주년을 맞이하

여 우리 정신인들은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내일을 이끌며, 큰 희망과 위로를 주는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학생들이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명문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

교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새출발을 위해 정신총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30주년 발전기금 모금을 의결하고 국내외 동문동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26일 개최되는 총동문예술제를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동문들까지 먼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간 오늘의 정신학교가 있기까지 마음과 기도,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주님의교회 교역자와 모든 교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30년간 정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영숙 정신학원 총동문회장

특집 / 정신학원 130주년 특별기고

나는 여전히 소망한다

정신여중은 나에게 윤동주시인의 <별 헤는 밤>이다. 눈을 감으면 언제든 타임머신을 타고 1973년. 열네 살의 소녀로 돌아가 오감이 살아나는 수많은 것들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타 학교와 달랐다. 종로5가 교정은 아름다웠고 시설은 훌륭했다.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따뜻하셨다. 먼 나라 미국 순회공연을 간다던 노래선교단 언니들, 첫 눈 내렸던 추수감사절,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에 비장하게 결단하며 일어섰던 부흥회,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지도자님께 배우고 떠났던 농촌 교회의 여름밤, 어머, 그때그때 오셨던 전도사님이 임영수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셨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기억들의 빠른 템포가 마침내 느려지며 멈춰진다. 윤동주시인이 어머니를 부르는 대목이다. 아. 이제껏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불러본다.

축복이다. 정신여중이기에 가능했다. 1887년 선교사에 의해 서양의 문물에 눈 뜬 신여성인 선배의 피

가 오늘 2017년 130여년을 이어온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몇 년 전 중학교 33주년 홈커밍 때 은사님의 회고가 생각난다. 이곳이 황금어장이었다는 걸 은퇴하고야 깨달으셨다는. 나는 그날 밤 참 많이 울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긋는 기형도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 되고 싶었다고.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다. 나는 무엇을 했냐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소망하고 믿는다. 나의 의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물주고 씨 뿌리고 기다린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정신에는 교사, 선배, 주님의 교회 기도어머니와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 떠돌고 줄다가도 찬양과 율동을 목청껏 부르고 따라하는 이 아이들도 어느 날 윤동주시인의 <별 헤는 밤>처럼 정신을 노래할 것이다.

정재영 정신여중 교사

특집 / 정신학원 130주년 특별기고

너무나 든든한 울타리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중고를 졸업하고, 현재 주님의교회 고등부에서 사역교사로 섬기고있는 정신여고 103회 졸업생 배세진입니다.

우선, 정신의 졸업생으로 정신학원 개교 130주년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신학교의 시작부터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청소년기 전부를 정신학교에서 보낸 제게 학교는 너무나 든든한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학교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교훈인 '굳건한 믿음, 고결한 인격, 희생적 봉사'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서 여성리더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정신여중에 입학할 때 하

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있던 채플과 종교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교회 고등부에서 하는 금요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난 것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년간 들어온 말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슴에 새겨지고,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가능했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신학교는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사랑과 기도가 쌓인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많은 후배님들이 저와 같이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받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학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바꿀 리더들을 키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세진 정신여고 103회 졸업생



아기나들이



이래은 아기

2017년 7월 4일생

1.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2.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로 날로 자라나기를.
3.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아빠 이재설 / 엄마 권유나, 2017년 10월 15일 3부 예배



이제인 아기

2017년 7월 19일생

1.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제인이 영혼 속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늘 고백하게 해주세요.
3.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빠 이승준 / 엄마 김세희, 2017년 10월 15일 3부 예배

사역소식

늘푸른대학 가을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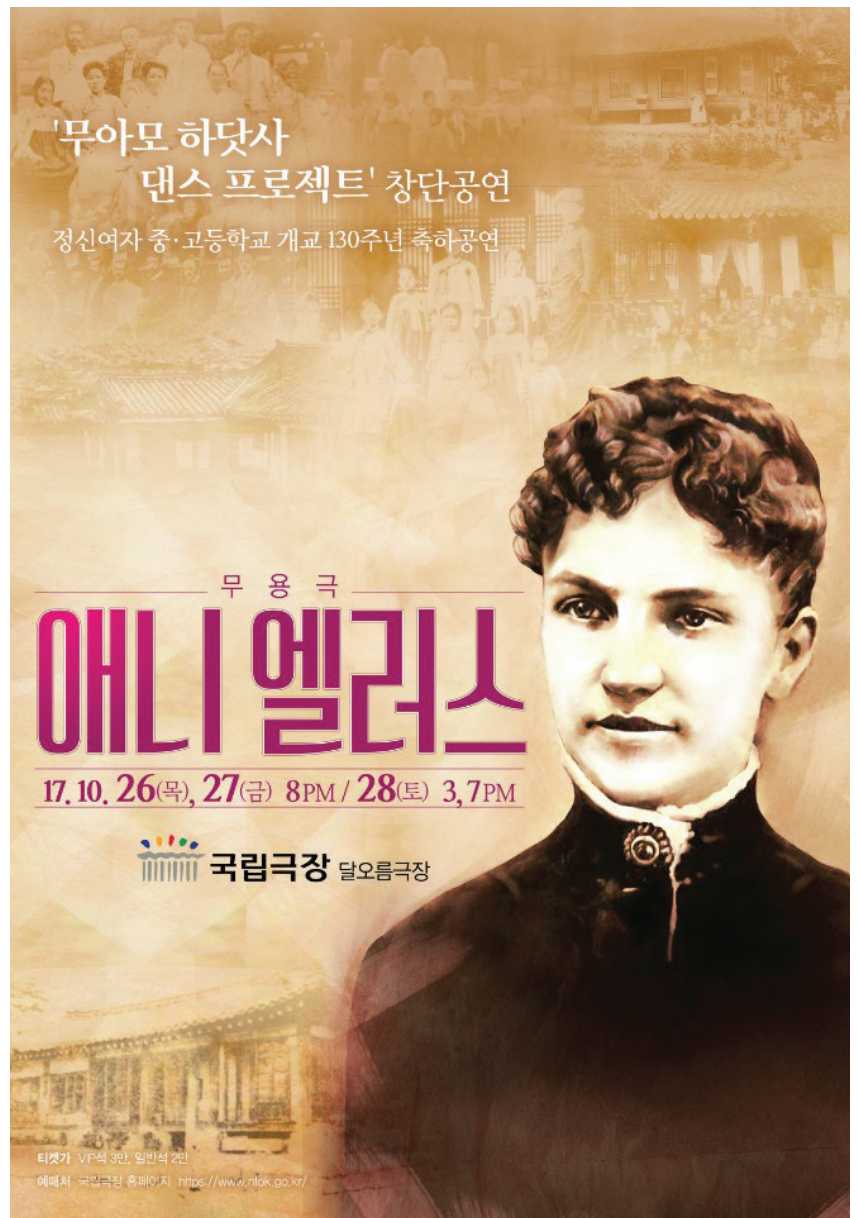
10월 17일 화요일에 늘푸른대학 가을 나들이로 양평 들꽃향기에 다녀왔다. 230여명이 참석을 하여 오는 가을을 즐겁게 보냈다.

시월의 한 가운데 작은 동산에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이 어찌나 청명한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에 작은 여흥으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산길사이에 피어있는 청초한 구절초와 양지바른 둔덕에 피어있는 자잘한 노란 산국 향기를 맡으며 흔들리는 아직 설익은 단풍을 바라보며 가을을 노래하였다. 모처럼 걷는 산등성이 길을 서로 손을 잡고 오르며 서로 사진도 찍고 작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들이었다.

봄과 가을에 함께 하는 나들이길은 늘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들이다. 건강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순간의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기도드리며 가을향기 햇살처럼 살포시 다가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였다.

함줄함줄

공연소식



'무아모 하닷사' 댄스 프로젝트' 창단공연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개교 130주년 축하공연

무용극 애니 엘리스

17. 10. 26(목), 27(금) 8PM / 28(토) 3, 7PM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알립니다

1. 군경에 입대한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일시 : 10월 31일(화) 10:20 제1집회실(5층)

문의 : 이성훈 안수집사(010.8949.1479).

2. 하나님 나라와 영성 훈련

4차 : 10월 23(월)~25(수)

5차 : 11월 27(월)~29(수)

내용 : 침묵기도, 복음관상기도, 기도지도(2회)

문의 : 김용웅 목사(010.4222.7796)

3. 독서 인문학 T.E.D(테드) 제18회 정기 특강

제목 : 크리스천을 위한 상한 감정의 치유

일시 : 11월 5일(주일) 오후1:00 제1집회실(5층)

강사 : 김충렬 목사(상담학 박사, 한일장신대 교수)

문의 : 신영백 안수집사(010.2684.8320)

4.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1,2,3(제3강)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1:30 제1집회실(5층)

강사 : 김명식집사(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문의 : (사)섬김과나눔(02.415.5113)

5. 4부 예배 찬양팀 싱어모집

대상 : 25세 이상 남1/여1 (지속적 섬김이 가능하신 분)

섬김 시간 : 주일 11:20~4부 예배 종료시

문의 : 김희영 집사(010.9965.4707)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